

양계용 사료첨가제 급여 효과 연구 활발

한국가금학회 학술발표회 개최

>>> [취재 _ 오세진]

닭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료 첨가제 급여 효과, 유전적 특성,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 등 가금 관련 최신 연구 성과를 한 눈에 접해 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가금학회가 주최하고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한 한국가금학회 학술발표회가 11월 1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Betain, 감 과피와 감 과피 탄닌 추출물, 강황분말, 마늘 추출물, 생균제, Cu 및 Se, 약용 식물 추출물 등이 산란계 및 육계 생산성, 그리고 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되는 등 사료 첨가제의 효용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신진가금학자 특강을 통해 전북대 박재홍 박사는 산란계에 있어서의 Betain 첨가 효과 실험 결과 “산란율에서 Betain 급여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백질 수준이 낮은 사료에

서 Betain이 산란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신영근 박사(MK생명과학 대표이사)는 감 과피 분말과 가용성 탄닌 추출물 첨가 급여 결과 “난황색과 난각색이 유의하게 개선되거나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계란의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특히 간 내 지질 함량을 낮춤으로써 지방간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이영목 박사는 기존에 행해졌던 배아를 이용한 방법과는 다른 닭에서의 생식선 카메라 생산 방법으로써 정원세포의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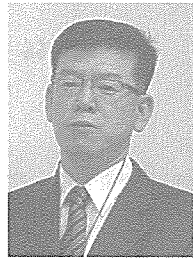
신진가금학자 특강에 이어 영양·가공분야, 번식·육종분야, 질병분야로 나뉘 학술발표회가 진행됐다.

건국대학교 비만추영양학실험실의 박성설 외

6명은 '산란계 사료내 강황분말의 첨가 급여가 계란 생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란율, 일산란량에 있어 처리구와 대조구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난황색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 박재홍 박사



▲ 신영근 박사



▲ 이용목 박사

같은 연구실의 유선종 외 6명은 '마늘 추출물, 생균제, Cu 및 Se의 첨가급여가 산란계의 콜레스테롤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이들을 혼합 첨가 급여했을 때 콜레스테롤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축산연구소와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주)미래자원ML은 '약용식물 추출물의 음수급여가 육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공동 수행, 약용식물 중 향균, 항산화, 면역 활성이 우수한 오미자, 황금, 녹차, 인진쑥 등을 선발해 이를 육계에 급여한 결과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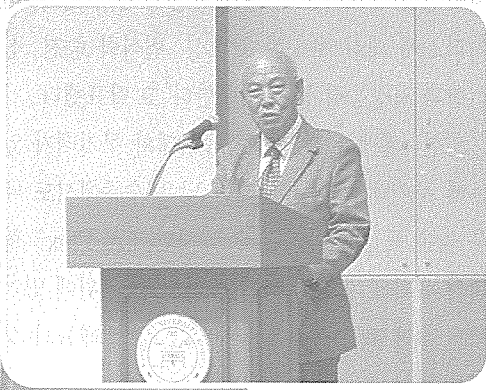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보다 활발한

연구성과를 보인 참가자들에 대한 격려가 이어진 반면, 반복 실험이 부족했고 수치 설정 등이 억지스러운 실제 농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대학원생우수논문발표상에는 'SPF 닭에서 재조합 H9N3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평가'란 주제를 발표한 충북대 신정화씨를 비롯해 이범규(건국대), 이경연(충남대), 성명숙(경북대) 등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한국가금학회 강창원 회장은 "농장 HACCP 도입 등 가금 분야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연구 인력은 부족하고 지원이 약해지고 있다"며 "창립 30주년을 넘어 청년기로 접어든 우리 가금학회가 모자란 부분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유동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에는 닭 1만수만 키워도 큰 농장이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농장이 많을 정도로 양계업의 규모가 많이 커졌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미FTA 등 어려운 현안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양계업의 발전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㉟



▲ 우리협회 유동준 회장이 한국가금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